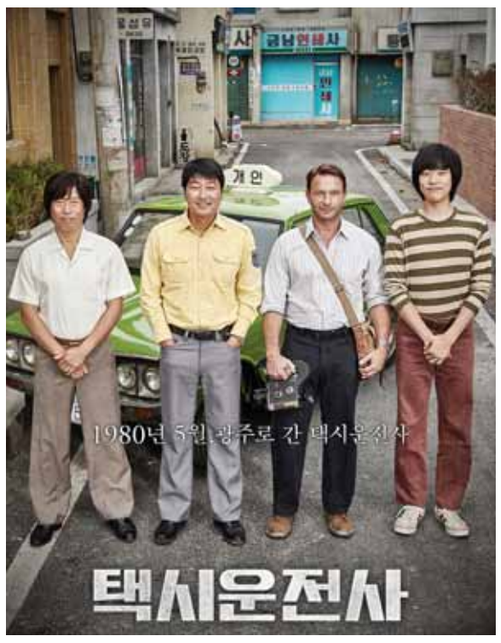
천만 코앞 '택시운전사' 세트장 철거 후회되네…

광주시 3억 지원하고도 유지 못해
관광상품화 절호의 기회 못 살려
'화려한 휴가' 세트장도 흔적 없어

'택시운전사' 열풍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의 첫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택시운전사' 세트장 등 정작 '5월 영화의 흔적'은 광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전사'의 광주 세트장이 이미 철거되고, 앞서 개봉한 '화려한 휴가'(2007년)의 세트장도 오래전 철거됐다. 이에 영화 촬영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통해 5·18을 알리고, 이를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화 '택시운전사' 영화사 측은 지난해 7월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일대 부지에 세트장(4만9585㎡)을 지어 1980년 당시 금남로 일대 현장을 재현한 뒤 2달여 동안 영화를 찍었다. 영화 흥행이 지역 홍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이 지역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동안 영화사가 쓴 숙박비, 식비 등 총경비의 40% 내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또, '택시운전사'의 광주 촬영 경비 중 일부인 3억원을 영화사 측에 지원했다.



하지만 영화제작이 끝난 뒤 이 세트장은 바로 철거됐다. 광주시는 부지 임차기간이 끝난데다, 광주도시공사 소유인 이 부지 일대에 복합문화타운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세트 시설을 곧바로 뜯어냈다.

앞서 5월 광주의 참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을 받았던 영화 '화려한 휴가'의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 세트장도 지난 2009년 철거됐다. 광주시와 부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는 세트장 일부 시설이 무너지고, 유지·관리비가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세트장은 지난 2005년 12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시 북구 오룡동 일대 5만6000여㎡의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 30억원을 들여 금남로 일대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영화 흥행에 힘입어 한때 20만 명을 넘는 방문객이 세트장을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전국에 알린 대표적인 영화들의 세트장이 모두 사라져버린 셈이다.

한편 14일 현재 '택시운전사'는 관람객 800만명을 넘어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자 노트

경찰 수뇌부 갈등 잠재운 김부겸

김 형 호
서울취재본부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입으로 소란은 일단 정리됐다.

김 장관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경례!" 구령에 맞춰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 13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 장면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치안총감),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전 광주지방경찰청장)도 함께 사과했다.

국민은 최근 이 청장과 강 학교장 등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벌이는 진실 공방을 혼란스러운 심경으로 지켜봤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난이 들끓었다. 경찰의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 내홍이 불거진 탓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줘도 되느냐?"라는 여론도 일었다. 그러나 김 장관이 등장하면서 갈등은 급속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관련 광주일보의 최초 문제제기〈2016년 11월21일 6면〉때는 분명한 답변을 망설이던 강 학교장은 지난 7일부터 뒤늦게 작심한 듯 경찰 총수를 겨냥해 끝모를 폭로를 이어갔었다. 그런 강 학교장도 김 장관의 개입 이후 관련발언을 삼가는 모습이다. 이 경찰청장 역시 대국민 사과 이후 "엄중한 시기에 동료께 상처를 줘 송구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한 명 한 명의 경찰에 보냈다.

경찰 수뇌부의 갈등을 주무장관이 공개 질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독립 외청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다만, 정책과 공직기강, 경찰청장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장관의 권한' 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부겸의 힘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4선 중진 의원이자 실세 장관의 힘이라는 얘기다.

특히, '김부겸에게서 노무현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야권의 불모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잇따라 도전하는 '바보스런 고집' 탓이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소신발언을 하는 평소 스타일도 고려됐을 것이다.

볼썽사나운 공방을 보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민은 물론 국민 상당수는 김 장관의 '개입'에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전남 마지막 위안부
곽예남 할머니 위문
윤장현 시장 "아픈 역사"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곽예남(93)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위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광주·전남지역 마지막 생존자인 곽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당한 뒤 중국에서 거주하다 2004년 4월 조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현재 담양에 거주하는 곽 할머니는 치매와 폐암으로 투병중이며 함께 거주하는 조카와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증상이 호전됐다.

윤 시장은 이날 담양 자택을 찾아 "위안부 피해는 우리가 살펴야 할 아픈 역사다"면서 "존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분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육성 공개 증언 이후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8월14일을 이 날로 지정하기로 결의하면서 선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일자리 동향 점검 윤장현(맨 오른쪽) 광주시장이 14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열린 '일자리상황판 시연행사'에 참석, 상황판을 보며 직원들과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창조경제센터 상품 아이디어 공모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의적 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마감은 다음달 13일이다.

공모 분야는 ▲농수산 원료의 특징을 살린 식품 제조 제품 ▲화장품·환경개선제·화학제품 등 바이오 활성소재에 기반한 기능성 소재 제품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이다.

제출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 후 전문가 1대 1 멘토링과 집합교육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 5개를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및 자료제작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장려상 3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시상한다.

또 이들에게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시설 입주 가산점이 부여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상품 아이디어 사업화 기회도 제공된다.

문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5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청 공무원들 포상금 500만원
저소득층 아이들 500명 자립 후원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을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립 밑거름이 될 '디딤씨앗통장' 개설에 후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선물 등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들은 "아동정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이니만큼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자"며 포상금을 디딤씨앗통장 개설 후원금으로 내놨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의 기초수급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때 요긴하게 사용할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자와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저축득층 지원 사업이다. 아동 또는 후원자가 통장에 적립하는 금액만큼 국가가 1대 1 매칭펀드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 또는 후원자가 1만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만원을 지원해 2만원이 적립된다. 국가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대상아동 추천을 받아 선정된 아동 500명에게 1만원씩 적립된 통장을 만들어주게 된다.

직원들은 전남의 디딤씨앗통장 개설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도 담았다. 전남지역의 월평균 1만원이상 저축아동 비율은 84.1%로, 전국 평균 86.6%보다 낮다. 특히 기초수급아동은 통장 개설은 74.7%로 전국 평균(80.1%)보다 5.4%포인트나 낮다. 이는 당사자들이 당장의 어려운 형편 탓에 통장 개설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들이 포상금을 가치있는 일에 사용해 정말 고맙다"고 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메이저리그, 기아 타이거즈 서재응 선수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